

어린이·청소년 불교캠프 '다채' '화합의 힘' 배운다

사찰·단체별 프로그램 마련

가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방학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찰과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름캠프와 수련회가 다채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별자를 기다린다. <표 참조>

참선수행에서부터, 자연탐사, 단력쌍기, 민속놀이, 물놀이 등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형체와 활기찬 캠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현대불교신문사가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7월 22일~24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연다.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불교신행의 기본인 예불과 참선, 108배 정진은 물론, 힘과 활기찬 캠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한다. 또 에버랜드 놀이시설과 캐리비안베이수영장에서 놀이도 즐길 예정이며, 이집트 파라오와 장미축제도 관람한다. 참가비는 5만5천원이며, 선착순 500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진주불교회관도 7월 30일~8월 1일까지 지리산 정각사에서,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가 전국 불교어린이 여름수련캠프를 7월 22일~24일 봉선사에서, 무진법장사는 7월 23일~25일 어린이여름불교캠프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백양사, 대둔사, 신흥사, 직지사, 해인사, 통도사, 은해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잇따라 연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수행환경 파괴에 직면한 울산 청룡암. 원내는 공장건립지로 사찰과 바로 인접해 있어 수행환경 파괴가 예상된다.

뉴스 & 뉴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관망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공사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 의무를 거치도록 했다. 오종욱 기자

24일 조계종 불교복지 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24일 오후 2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계 사회복지 전산망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1차 불교계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불교계 사회복지기관과 불교사회복지기관 책임자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논제는 조계 복지사업이 공유하는 통일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제시 및 불교사회복지사업 네트워크 구축의 현실성에 대한 토론 등이다. 한명우 기자

선학원 선우승가회 창립

선학원 부산-경남지역 모임인 선우승가회가 5월 25일 창립했다.
창립대회에는 진제스님(금포선원 조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도봉스님(부산 천불선원장), 총무 송월스님(부산 소원사 주지, 051-645-1547)이 선출됐다. 선우승가회는 이후 재단 행정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월파·법타스님 등 재심

조계종 재심위원회(위원장 원사)는 25일 제17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 해 종단사태와 관련해 해종목위에 의해 제소된 월파(통도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해인(약천사 회주) 기연스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판부에서는 또 성보도단의 건 등으로 1심에서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은 현교(전 송광사 주지) 법일(전 기림사 주지) 진현스님(전 보경사 주지) 등에 대한 징계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청교련 아산지부 자원봉사

대한불교청교련아산지부(지부장 종인스님)는 19일~20일 노인복지시설 장애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남당도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날 행사에는 아산지역내 청소년 15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19일 오전에는 봉사활동의 의의, 집단별 유형, 봉사활동기 체험 등을 주제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했다. 이은자 기자

울산 청룡암과 50m 거리 재생공장 2곳 짓는다니 소음·진동 피해 '불보듯'

신도·주민 2900명 구청에 허가취소 탄원

통도사 말사인 울산 청룡암이 기도와 수행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청룡암 50m 상부에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공장이 건립 예정이어서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페아스콘 재생공장과 건축 폐기물 재생공장인 (주)한국아스콘 엔지니어링과 (주)강원이다.
청룡암이 위치한 통도산 상단에 이 두 공장이 건립 가동되면 울산 청룡암의 수행환경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 공장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바로 사찰 상설기구인 대의혈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조성의 활성화도모와 홍보기능을 추가해 학교행정의 정식기구로 개편했다.
통도사는 불교중앙병원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국 주요사찰 순회법회, 자비의 벽돌쌓기, 대각전 만불보살운동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관청인 울산 북구청은 "두 업체 모두 적법하게 신고와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향후 가동시 예상되는 소음,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두 공장의 건립은 진입도로가 사할 경계지로 관정이 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이 공장이 건립을 강행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지 종현스님은 "사찰의 5천6백여 신도가 당장 기도와 수행의 도량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도 위협받고 있어 공장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기했다.
청룡암은 지난 14일 '청정도량 수호를 위한 백일기도'를 입재하고 매일 신도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해당 업체와 구청을 방문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울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총지종 복지사업 나섰다

내달 재단 설립...사회시설 위탁·지원 활동

총지종(총리원장 총지화)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총지종은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로써 불교계 종단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조계종과 진각종에 이어 총지종이 세번째다. 복지법인 대표이사에는 효장 법장원장이

선임됐다. <관련 인터뷰 4면>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그동안의 복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위탁운영, 사회복지지원의 개발과 각종 지원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인 발족식은 7월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종단 본산인 서울 총지사에 설치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 발전기금 4백억원 돌파

모금 5년여만에...불교종합병원 10월경 착공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으로 불교종합병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한 동국발전기금이 모금 시작 5년여만에 400억원을 돌파했다.
조성된 기금은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다음으로 청담테크노파크단지개발 제3캠퍼스 건설과 교육시설 확충, 연구 및 실습기자재 구입, 도서관 장서구입, 국가고시 육성 후원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불교종합병원 착공식은 설계가 완성되는대로 10월14일경 거행할 방침이다.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 건

설비용으로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동국대는 1차적으로 불교종합병원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모금활동을 추진해온 한시적 기구인 100주년사업본부장을 상설기구인 대의혈터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조성의 활성화도모와 홍보기능을 추가해 학교행정의 정식기구로 개편했다.
통도사는 불교중앙병원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국 주요사찰 순회법회, 자비의 벽돌쌓기, 대각전 만불보살운동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군법당 시주금재판대책위' 만든다

교계 21개 단체 합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등 승가단체와 법조계인인 불교언론인회 불교바로세우기재단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총동맹회 불교기자협회 예비역군법사단 등 종교권단체책임위원회 소속 21개 단체는 일명 '김태복소장 사건'과 관련한 '군법당 건립 시주금 재판에 대한 대책위원회' (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예비역군법사단과 종교권단체 책임위원단 실무자들은 15일 3차 실무 준비모임을 갖고 '군법

당 건립 시주금 재판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교단체 대표자회의를 23일 오후 2시 종단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확대된 대책위 발족, 공동변호인단 구성 연합회 대불련총동맹회 불교기자협회 예비역군법사단 등 종교권단체책임위원회 소속 21개 단체는 일명 '김태복소장 사건'과 관련한 '군법당 건립 시주금 재판에 대한 대책위원회' (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예비역군법사단과 종교권단체 책임위원단 실무자들은 15일 3차 실무 준비모임을 갖고 '군법

PC통신 불교동호회들 여름불심다지기

정진법회·금강경 100독운동 등 전개

PC통신 각 불교동호회들이 불자 네티즌들의 여름 불심다지기에 한창이다. 유니텔,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신비로, 넷츠고 등 6개 PC통신 불교동호회가 지난 주말(19일)부터 정진법회 및 수계법회, 금강경 100독 운동, 불교문화 체험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불자 네티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이사 정경자)는 7월10일, 11일 양일간 김천 직지사에서 정진법회 및 수계사를 갖는다. 또 지난 2일부터 벌여오고 있는 '금강경 100독 캠페인'을 확대운영해 독경삼매로 뜨거운 여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님나라는 통신불자들을 위한 <법요집>도 출간해 선보이고 있다.
나우누리불교동호회(대표이사 김진현)도 7월31일~8월1일 1박2일 동안 천안(장소미정)에서 수련회를 갖고 회원들의 바른 신앙을 이룰 계획이다. (psdo@buddhania.com)

하이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 정지은)는 지난 18일 강화 전 등사 인천포교당 법왕사에서 인천부천모임 정진법회를 가진데 이어 8월8일~8월 2박3일간 충청모임(지역장 임경빈) 정진법회 및 수계법회를 열어 통신불자들과 함께 한다. '체험, 출가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진법회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일체 묵언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하이텔 서울경기도모임(지역장 최희선)도 27일 오전 10시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있다.
이밖에 천리안불교동호회 대구모임은 19일 대구구도회 법당에서 정진법회를 갖고 팔공산 가뉘미 및 영천 거조암 순례법회를 병행했다. 넷츠고불교동호회도 같은날 서울경기도모임 주최로 서초중학교 운동장에서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신비로도 20일 일산사, 천은사 불교문화체험기행을 실시해 불자네티즌들의 불심을 다졌다. 도필선 기자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허가 소망과 따나는 불교전리담 ①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⑤ / 불교계 승·재가 인연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건으로 보는 성보기행 ⑤ / 99년축문화의 해 특징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있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효음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로운 의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영하는 법

불교와문화 집의: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팩스: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범우사문고 값 2,000원

흔쾌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정취수 같은 책

無所有

무소유

다시, 그 청정한 울림
일상에 가려져 있는 명징한 삶의 진리가
한 구도자의 목소리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찾아온다

범우사 / 강도선 스님 / 화엄이 삶인 주인 없는 오우리를 빌려 불로 맑음을 구하고 법을 입으며, 향연이 도는 맑고 향로운 삶을 살았으며, 자신 스님은 30년이 넘는 침묵과 무소유를 행했으며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